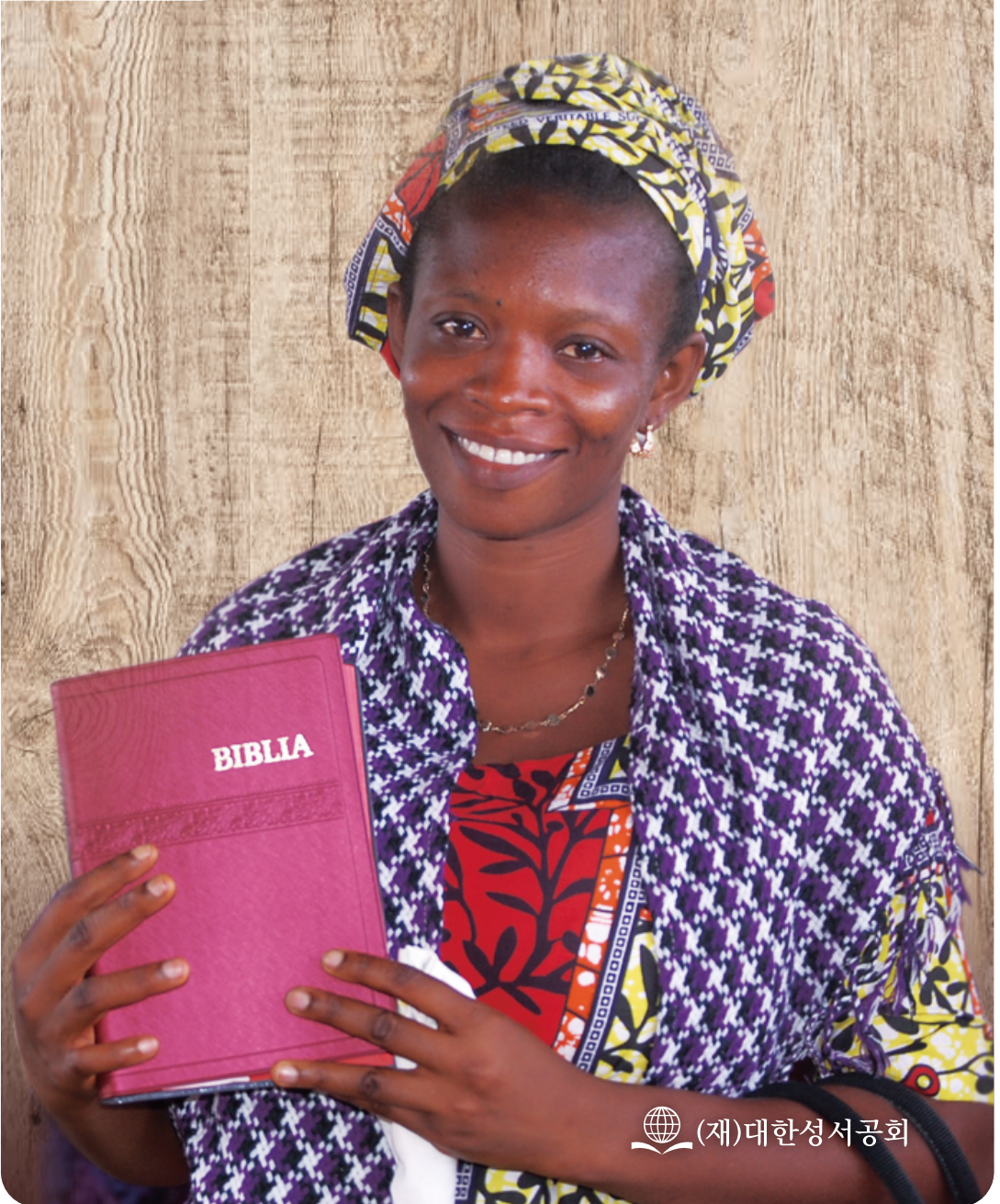


2017

겨울 제63권 4호

#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재)대한성서공회

#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 성경을 보내는 일, 선교사를 보내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  
해외 성서공회의 지원으로  
한글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 한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현재 150여 개 성서공회들로 구성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와 함께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 미자립 성서공회 사역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합니다.



###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교회와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외 지구촌 이웃들에게 귀중한 성경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 [www.bskorea.or.kr](http://www.bskorea.or.kr)

## Contents

- 02 포토에세이  
성경이 전하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 04 2017 성서 사업 보고
- 06 커버스토리\_토고  
성경 한 권을 통해 토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 10 2017 해외 성서 지원 현황  
71개 국에 664,824부 성경을 보냈습니다!
- 12 말씀을 만나다  
부발하테비스트와 노루
- 14 성경을 받은 사람들  
미얀마 모든 소수민족에게 첫 번역 성경을
- 16 긴급 모금  
지진으로 무너진 멕시코,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 18 나의 삶을 바꾼 성경 한 권  
드디어 저에게도 성경이 생겼어요!
- 20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 22 후원 회원
- 23 대한성서공회 소식
- 24 대한성서공회 후원 회원 초청 '성경 기증 예식'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02-2103-8861~3  
· 편집문의 : 02-2103-8855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6~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17년 12월 31일  
· 인쇄인 : 김현수  
· 인쇄처 : 삼립인쇄(주)  
· 편집 : 강수현

\* <http://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의 회원국으로  
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  
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잡지 유통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 성경이 전하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27)”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피난 온 시리아 난민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줄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여러 구호물품 가운데 빛나는 **성경**,  
두렵고 지친 이들의 영혼을 달랠 수 있는 구호 물품입니다.

추운 겨울,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어있던 이들의 마음이  
녹아 참 평안이 전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 ‘미자립성서교회 성서 기증 사업 10년’



권의현 사장

국내외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을 보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성서교회 성서 기증 사업을 시행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8년 첫 해에 18개 성서교회에 15만 3천여 부를 기증하는 규모로 시작하여, 금년에는 71개 성서교회에 66만 4천여 부를 기증하는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00여 개 성서교회에 총 2,852,474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기증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모금 사업의 중심이었던 서구 성서교회들의 지원 규모가 점점 축소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등 세계적으로 성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서교회들의 성서 기증 요청이 본 공회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각 성서교회들의 이러한 성서 기증 요청에 대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는 후원회원의 확대와 교회 및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118개 나라에 210개 언어로 총 6,003,462부의 해외 성서를 보급하여, 1973년 해외 성서 보급을 시작한 이래 총 1억 7천여만 부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에 소속된 140여 개 성서교회 중 해외 성서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3개 성서교회 중에 자국어가 아닌 외국어 성경을 가장 많이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성서 출판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성서 출판 지원 센터”로서, 각 성서교회들이 성서 출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가나 남수단 마다가스카르 스와질란드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31개, 중남미의 니카라과 볼리비아 아이티 코스타리카 쿠바 등 22개, 유럽 중동 지역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요르단 이집트 등 9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얀마 태국 파키스탄 등 9개국을 포함하여 **한 해 동안 71개 나라에 664,824부의 성서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서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보내주신 교회와 기관, 개인들로부터 **올 한 해 동안 33억 3백여만 원의 헌금을 답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카리브해 연안을 강타한 허리케인과 연이어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등의 성서교회에서 성경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전쟁과 테러,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억압 가운데에서도 성경 보급을 통한 선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이집트와 요르단 등의 아랍권 성서교회들에서도 성경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신년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서교회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내외에 성경을 보내는 운동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해주시는 후원 교회의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 내용은 대한성서공회 제128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정리 요약한 것입니다.

### ■ 한눈에 보는 2017 성서 사업 보고

제작, 보급



118개 나라 210개 언어  
6,003,462부  
제작 보급

기증



71개 나라  
664,824부  
제작 기증

후원



33억 3백여만 원

## 성경 한 권을 통해 토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성경을 기증 받은 토고 사람들

위치



아프리카 서부 기니만 연안

인구



약 800만 명

언어

볼어(공용어), 에웨어,  
미나어 외

종교



■ 개신교 29%  
■ 무슬림 20%  
■ 주술신앙 51%

**엘**시 응리바는 토고성서공회로부터 토고 소수민족어인 미나어 첫 번역 성경 한 권을 선물로 받았다. 하지만 성경을 받자마자 걱정이 앞섰다. 글을 읽고 쓸 줄 몰랐기 때문이다. “성서공회로부터 성경을 받던 날 제가 글을 읽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저를 보며 비웃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침 지역교회 대상으로 성서공회에서 문자교실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엘시도 다른 교우들과 함께 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모임 참석 전, 엘시는 남편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그녀가 겪고 있던 위궤양과 고혈압이 더 심해졌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엘시는 어떤 교회 모임에서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다.

하지만 문자교실을 통해 한 자 한 자 글을 깨치며, 수업시간 읽은 용서받은 종에 대한 성경 이야기는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 “제 삶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용서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꿈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남편을 용서해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펄펄 울었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목사님을 찾아가 말씀 드렸고, 목사님은 저를 위해 기도해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왔고, 더 이상 어떤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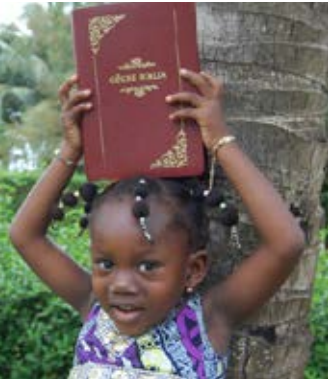


성경을 읽고 있는 토고 어린이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지하고 글을 모르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 성경 한 권이 저를 이 문자교실로 이끌었고 제 삶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제 주변사람들은 이제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스스로도 제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 엘시 응리바(35세)

엘시는 이제 남편 외에도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다짐했다. 건강도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미나어 성경을 받은 어린이

### 첫 번역 성경의 감동, 그 이후의 과제

2015년 초, 토고 미나와 바사르 부족의 감격스러운 첫 성경 봉헌식이 있었다. 토고의 미나와 바사르부족은 토고의 가장 큰 소수민족 중의 하나로, 부족 인구의 75%가 원시신앙을 믿으며 주술신앙이 부족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자매성서공회의 후원과 협력을 통해 성경을 번역한 끝에 2015년 봉헌식을 가질 수 있었다.

첫 번역 성경이 봉헌된 후, 2016년 토고성서공회를 방문했을 때 미나 부족 대표는 미나어 첫번역 성경을 조판하고 제작하는데 협력해 준 대한성서공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이 지역은 특히나 주술신앙인 부두교가 활발한 지역으로 현지 기독교 또한 원시신앙화 되어버린 상황이라 성경을 통해 올바른 신앙관이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한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한다는 점이다. 소수민족지역인 미나, 바사르 지역의 문맹률은 토고 전역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다. 토고 국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44세의 젊은 층의 43%, 약 97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문맹이며 이 중에 2/3는 여성이다. 성경이 완역되기 이전부터 미나 바사르 지역과 교계 지도자들은 그 부족을 위한 문자교실에 대해 제안해왔다. 이는 이들의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과 보건의 영역까지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나어 첫 번역 성경 봉헌식

이러한 요청에 따라 토고성서공회는 성경을 교재로 사용하여 각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문자교실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문자교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글을 깨칠 뿐만 아니라 엘시와 같이 성경을 읽고 체험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 성경을 통해 살아갈 희망을 찾아가는 토고 소외계층

토고성서공회는 문자교실 이외에도 에이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그램과 수어 성경 프로젝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음만을 기다리던 에이즈 환자들에게 살아갈 희망이 생기고, 사회에서 소외되어 기초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토고 교회는 공격적인 포교활동을 펼치는 무슬림 앞에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대한성서공회는 올해에도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성경을 보내어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 성경을 보내는 사역에 후원회원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토고성서공회가 협력하고 있는 청각 장애인 학교를 방문한 권익현 사장



### ♥ 후원문의 ♥

토고에 전달하는 컨테이너 한 대에는 10,000권의 성경이 들어갑니다. 매월 10만 원이면 20명, 1만 원이면 2명의 토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토고에 보내는 성경 컨테이너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080 - 374 - 3061(수신자 부담),  
02 - 2103 - 8861~3

여러분의 후원으로

71개 국에

664,824부 성경을 보냈습니다!



### 아프리카 지역(31개국)

308,115부

가나, 가봉,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 파소,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 공화국, 탄자니아

### 중남미 지역(22개국)

230,056부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와 아루바,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동카리브, 멕시코, 볼리비아, 서인도제도,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 유럽 중동 지역(9개국)

66,474부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스라엘, 요르단, 이란 디아스포라, 이집트, 키프로스, 터키, 팔레스타인

### 아시아 태평양 지역(9개국)

60,179부

남태평양, 대만,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 부발하테비스트와 노루



부발하테비스트

### ● 관련구절

신 14:5; 왕상 4:23

### ● 이름에 대한 논의

히브리어 ‘야흐무르’(yachmur)는 영어 역본에서 대개 ‘수노루’로 번역되지만, 많은 성서 동물학자들이 이에 반대한다. 노루가 성서 시대에 흔하긴 했지만 무리 지어 살지는 않으며, 겁이 많고 뾰뾰한 덩불을 좀처럼 안 떠나기에 사냥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왕상 4:23이 말하듯 엄청난 수의 노루가 솔로몬의 식탁에 매일 오르기는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동물학자들은 ‘야흐무르’가 ‘부발하테비스트’(bubal hartebeest), 즉 ‘붉은하테비스트’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 동물은 성서 시대에 잘 알려져 있었고, 사슴처럼 반(半)가축화된 무리로 기를 수 있었다.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에서 부발하테비스트가 벽과 돌에 새겨져 있고, 미라 처리된 하테비스트도 이집트 유적지들에서 많이 발견됐다.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유적지에서도 하테비스트 뼈가 많이 나왔다. 뼈들은 가나안의 제단 가까이에서 발견됐는데, 가나안인들이 하테비스트를 제물로 바쳤음을 뜻한다.

‘야흐무르’의 어근은 ‘붉다’라는 뜻의 ch-m-r이다. 여기서 ‘나귀’라는 말도 나왔다. 부발하테비스트는 붉고, 뿔 달린 나귀를 꼭 닮았다. ‘하테비스트’는 네덜란드어에서 왔는데 ‘사슴-소’라는 뜻이다.

### ● 모양

‘노루’는 작은 사슴류이다. 어른 수컷은 셋으로 갈라진 짧은 뿔이 있다. 털은 여름엔 갈색이 돌고, 겨울엔 회색이다. 뾰뾰한 숲의 덩불 속에서 홀로 또는 쌍으로 지내고, 먹을 때조차 은신처에서 1-2미터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

부발하테비스트는 어깨까지 키가 1.5미터쯤 되는 큰 영양이다. 암수 모두 얼굴이 펑 길고 머리에 큰 혹이 있는데 거기서 짧고 굵은 뿔이 솟아 있다. 뿔은 절반까지는 위로 구부러져 올라가다가 뒤로 급하게 휘어진다. 몸은 붉은 빛이 도는 갈색이다. 평원에 살고, 무리 지어 풀을 뜯는데, 가젤이나 얼룩말이나 다른 영양과 섞여 있을 때도 많다. 등이 굽어서 볼품없어 보여도 달리기 선수이다. 10킬로미터까지 빨리 달릴 수 있어서 이 거리를 달리는 동안 어떤 동물이든 쉽게 따돌린다.

한때 북아프리카와 이스라엘 평원 어디서든 볼 수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베두인인에게 ‘들소’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었다. 지금은 보츠와나의 칼라하리(Kalahari) 반(半)사막 지역과 앙골라,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의 인근 지역에서 볼 수 있다.

### ● 번역

(1) ‘노루’로 번역하는 경우: 노루를 아는 지역에서는 노루를 부르는 이름을,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작은 사슴을 부르는 이름을 쓸 수 있다. 후자의 예로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문착(muntjak)이나 애기사슴(barking deer), 라틴 아메리카의 팜파스사슴(pampas deer) 등이 있다. 사슴이 살지 않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홀로 생활하는 작은 영양, 예컨대 다이크영양(duiker)의 한 종을 부르는 이름을 쓸 수 있다.

(2) ‘부발하테비스트/붉은하테비스트’로 번역하는 경우: 부발하테비스트가 서식하는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에서는 이를 부르는 현지명을, 다른 비슷한 하테비스트가 서식하는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 종을 부르는 현지명을 쓸 수 있다. 🌐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Living Things in the Bible*, by Edward R. Hope (UBS, 2005) 중에서 (번역: 김동혁)

## 미얀마 모든 소수민족에게 첫 번역 성경을

— 미얀마성서공회 총무 방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미얀마성서공회 총무와 소수민족어인 파오 성경 번역자가 방한하였다. 이번 방한은 미얀마 소수민족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를 후원한 교회에 직접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미얀마의 성서 번역과 보급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기도를 요청하였다.

◀ 후원교회를 방문하여 감사인사를 전하는 미얀마성서공회 코웨이 람 탕 총무

미얀마는 전체 인구 2,500만 여 명 중 89%가 불교도인 불교국가이다. 미얀마의 모든 출간물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전도지, 기도문에서 ‘죄’나 ‘진리’와 같은 용어의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직접적인 성경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태국)의 도움을 통해서만 반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로 인해 성경을 반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얀마에는 약 135개의 소수민족이 있으며 약 200여 개의 부족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얀마 기독교는 주로 변방에 위치한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고 있으나 몇몇 부족어만이 번역되었고, 성경이 번역되었어도 미얀마 내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 보급할 수 있는 성경의 수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성서공회는 한국 교회와 협력하여 2011년부터 미얀마 소수민족 언어 성서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소수민족들이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이 사역은 선교사와 목회자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방문 전, 코웨이 람 탕 총무는 지난 2월 13일 미얀마 소수 민족 중의 하나인 조통 첫 번역 성경 봉헌식을 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고가 난 지 5개월 만에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을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당시 목발을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한국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방한하였고, 다행히 모든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었다.

코웨이 람 탕 총무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한 한국 교회와 후원회원들을 직접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미얀마에 보내주시는 그 성경을 통해 미얀마의 소수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였고, 미얀마성서공회의 성경 번역과 보급사역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기도를 요청하였다.🌐

### 미얀마성서공회 성경 번역 및 보급 사역의 어려움



#### 개인용 컴퓨터의 부재

소수민족 번역자들이 개인 컴퓨터가 없고 이를 사용할 환경과 시설이 열악하여 효과적인 작업 불가능



#### 의사소통의 문제

성서공회에서 멀리 떨어진 각 소수민족의 거주 지역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



#### 교통의 불편

원고 점검을 위해 감수자들이 방문 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 발생. 5~10월까지 우기에는 강이 범람하여 성경을 제때 각 지역에 보급하는데 어려움



#### 정부의 규제

출판물의 정부 인가, 직접 성경 반입이 불가능하여 이웃 국가(태국)를 통하여 반입



#### 경제적인 어려움

## 지진으로 무너진 멕시코,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입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앞을 지나가는 행인

**지**난 9월 19일(현지시간), 멕시코 중부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였다. 1985년 멕시코 대지진이 발생한 이 후, 또다시 발생한 지진으로 멕시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올해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이번 지진은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남동쪽으로 123km 떨어진 푸에블라 주 라보소 인근에서 발생하였다. 멕시코 시티 건물 38채가 완전히 무너졌고, 5,700여 채가 크게 훼손되었다.

**위치** 중앙 아메리카



**언어** 스페인어(공용어)



**인구** 1억 2,400만여 명  
(2017년 7월 기준)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는 멕시코 사람들



멕시코성서공회가 진행하는 지진 피해 구호 사역

놀란 가슴을 추스리기도 전에 사람들은 여진과 가스 누출 등의 2차 사고 위협으로 길거리에서 난민생활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 수도를 재건하는 데에는 앞으로 7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곳곳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의약품과 구호물품 등을 보내는 등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커지고 있다.

멕시코성서공회는 교회와 국제 구호단체와 협력하여 주택과 공립학교 그리고 교회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과 동시에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성경 구절을 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진정한 안식처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고, 지진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전하게 될 것이다.

###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시편 59:16

대한성서공회는 지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멕시코성서공회의 사역에 필요한 성경을 후원하고자 한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말씀이 멕시코에 전달되어 상처 입은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 긴급 모금 \*

지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멕시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달하는 컨테이너 한 대에는 **10,000권의** 성경이 들어갑니다. **1만 원**이면 **2명**, **10만 원**이면 **20명**의 멕시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 보내는 성경 컨테이너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080 - 374 - 3061(수신자 부담), 02 - 2103 - 8861~3



드디어 저에게도 성경이 생겼어요!

제 이름은 안푸옥이고, 10살이에요. 하노이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님, 할머니와 같이 살아요. 부모님은 기독교인이에요. 부모님이 수화로 해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성경 이야기를 들을수록 직접 성경 속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읽고 싶어졌어요.

드디어 저에게도 성경이 생겼어요! 주일학교를 마치면 배운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을수록 마음이 열리고 지식이 많아지는 거 같아요.



베트남의 안푸옥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3장 1절)



저는 잠언 3장 1절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가장 좋아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도 배웠어요. 자기 전에 그리고 잠에서 깬 때 항상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제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이에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 가장 좋아요!

예수님을 알게 된 후 모든 순간이 소중해지고, 더 뜻깊게 느껴졌어요. 때로는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고 놀려요. 그럴 때면 하나님께 제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해요. 슬프고 화가 나도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가는 걸 느껴요.





전 세계에 있는 성서공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전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반포하는 해외성서공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르메니아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걸쳐 아르메니아에서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르메니아성서공회가 아르메니아 전역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성경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르헨티나

**“그리스도인들이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서토바어와 아르헨티나 수화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르헨티나성서공회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맞는 사역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레바논

**“국경지역에서 사역하는 성서공회 직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에게 성경을 기초로 한 트라우마 치유 사역을 진행하고 성경을 반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서공회 직원들이 각처에서 사역을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남태평양

**“태풍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코로누부-바어(Koronubu-Ba language)로 된 마가복음을 12월에 출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 중인 피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말리

**“성서공회 직원들이 어린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성서 출판 프로젝트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리성서공회의 직원들이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나미비아

**“생애 첫 모국어 성경을 받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기도를”**

새롭게 번역된 퀘케고왁어(Khoekhoegowab) 성경, 개정된 옷지헤레로어(Otjiherero) 성경 그리고 딘바어(Dhimba) 신약성서를 오디오 형태로 보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으로 모국어 성서를 접할 수 있게 된 사람들에게 격려와 필요한 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어린이들의 꿈을 위한 성경 6,000부를 스와질란드에 보내다



기증식에 참석한 정선주 집사 가족들

10월 21일, 정선주 집사(부산 호산나 교회)의 후원으로 스와질란드에 스와티어 성경 6,000부를 기증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정 집사는 2013년부터 해외 성경보내기 운동에 참여하였고, 2015년 스와질란드에 스와티어성경 20,200부를 보냈습니다. 특히 지난 해 7월에는 정선주 집사의 가족들(언니 정선자 목사, 자녀 박지혜 양)이 스와질란드의 사역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극빈 가정의 어린

이들이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성서보급 사역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정 집사는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스와질란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성경을 받는 나라가 아닌 주는 나라로 부강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성경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 제12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제128회 대한성서공회 정기이사회에서 성서 사업을 보고하는 권의현 사장

대한성서공회 제128회 정기이사회가 2017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부 기도회에서는 조재호 목사(고척교회)가 “말씀 먹고 살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권의현 사장의 사장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다. 안건으로는 대한성서공회의 교단대표로 박태식 신부가 선임되고, 기독교한국루터회의 남상준 목사가 보선되었다. 이어 교단대표로 황순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이정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가 선임되었으며, 찬성회원 대표로 이정익 목사, 김경원 목사, 이용호 목사, 이만영 장로, 곽철영 장로가 선임되었다. 이어 감사에는 최규완 장로가 선임되었다.🌍



제128회 대한성서공회 정기이사회 전경

## 후원 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 회원님,  
올 한해에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전 세계 71개국에 664,824부의 성경**을 기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성경을 보내는 이 귀한 사역에 협력해주신 후원회원님들을 초청하여 성경 기증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해외 지구촌 이웃을 위해 성경을 보내는 그 은혜의 자리에 **후원 회원님을 초청합니다.**

### ■ 성경 기증 예식 일정(상반기)

**일 시:** 2018년 3월 15일(목요일) | 5월 17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장 소:** 대한성서공회 수원반포센터(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공세동 686번지))  
**대 상:** 후원 회원(가족 등)  
**인 원:** 50명 내외  
**일 정:** (1) 성경 기증식  
(2) 견학(성경 전시실, 성서학 도서관, 로스기념관)

### ■ 신청 방법

**문 의:** 대한성서공회 홍보진흥본부 (02-2103-8861~3)  
**접수 기간:** 3월 15일 - 2018년 2월 22일까지 신청  
5월 17일 - 2018년 5월 4일까지 신청



|       |                     |          |                                                                                                                                   |
|-------|---------------------|----------|-----------------------------------------------------------------------------------------------------------------------------------|
| 신 청 인 | 교 회 명               |          | 교회직분                                                                                                                              |
| 집 전 화 | 휴대전화                |          |                                                                                                                                   |
| 주 소   |                     |          |                                                                                                                                   |
| 약정금액  | 매월 원(성경 권)          | 이 메 일    | <input type="checkbox"/> 소식지 이메일 요청                                                                                               |
|       | 매월 100,000원(성경 20권) | 이 체 일    | <input type="checkbox"/> 매월 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1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5일 (신고부족 등의 이유로 미출금시 2회에 한해 재출금 됩니다.) |
|       | 매월 50,000원(성경 10권)  | 은 행 명    | 계좌번호                                                                                                                              |
|       | 매월 20,000원(성경 4권)   | 예금주명     | 예금주 휴대전화                                                                                                                          |
|       | 매월 10,000원(성경 2권)   | 예금주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민등록증 상의 생년월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신청인(예금주)은 대한성서공회의 선교사역에 후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효성에프엠에스(주)의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동의함에 꼭 체크해주세요!

신 청 인 : \_\_\_\_\_ (인 또는 서명)

예 금 주 : \_\_\_\_\_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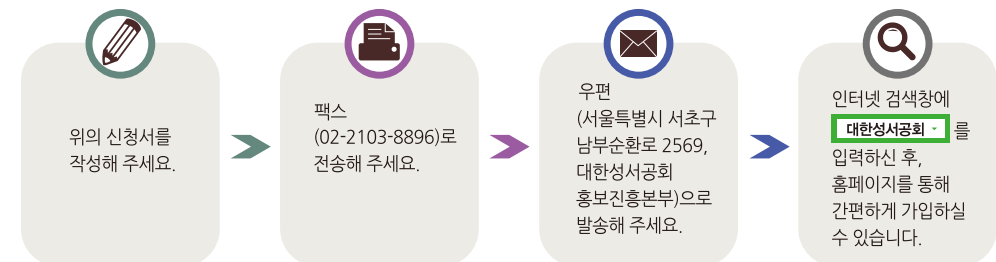
##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 ■ 꼭 확인해주세요!

1.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정보만 수집합니다.
2. 자동이체 등록시, 효성에프엠에스(전자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와 금융기관에서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예금주[납부자]의 연락처 확인 불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 : 효성에프엠에스(주), 금융기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fnc.c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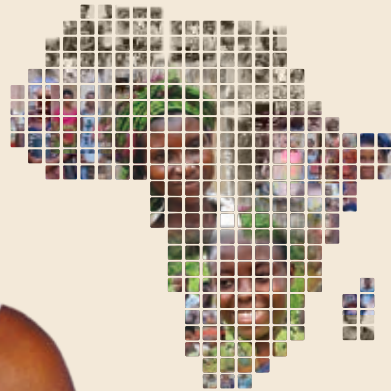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시면 발송비용을 절약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성경으로 희망을 전해주세요.

여성에 대한 편견, 계속되는 내전과 경제적 궁핍으로  
고통 받는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희망이 필요합니다.  
이 여성들이 성경으로 글을 깨치고,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날 서구 교회의 도움으로 번역, 보급된 한글 성경으로 한국 교회의 여성들이 변화되고 성장한 것처럼  
아프리카 여성들이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                           |
|-------------------------|---------------------------|
| 국민은행 070-01-0340-570    | 신한은행 140-009-909678       |
| 우리은행 1005-702-311166    | 농협은행 355-0025-0990-53     |
| 수협은행 033-01-085327      | 우체국 011916-01-000076      |
| KEB 하나은행 630-008603-501 |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

(구, 외환은행)

▶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대한성서공회)